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 통신소(사드 레이더 기지)를 가다.

—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에 반대하는 교가미사키 주민들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6월 4~5일, 현지 단체의 초청으로 '6.4 오키나와, 일본, 한국의 연대·교류 집회'와 '6.5 엑스 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교탄고 현지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행사 중에 미국의 조기경보레이더인 사드 레이더(AN/TPY-2,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이 글은 뽀뽀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기지 안내와 설명을 맡아준 나가이와 이케다, 오완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통역을 맡아주신 나가야 선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가미사키 미군통신소는 일본 교토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교탄고시 우카와 지구에 있다. 레이더 기지는 우리나라의 동해와 접해있는데 이곳은 원래 2차 대전 후 미군이 점령했다가 반환한 후 1958년부터는 항공자위대 레이더 기지로 사용됐다고 한다. 기지 인원은 군인 9명, 경비원 66명, 레이시온 기술자 31명, 보잉사 미사일방어내셔널팀(MDNT) 17명, 기본노무계약종업원(MLCs) 7명 등 130여 명이다. 만약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사드 레이더만 배치된 일본과 달리 요격 미사일도 같이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기지 인원은 일본의 2배가 넘을 것이다. 기지 규모는 약 3.6헥타르(1만 평)이다. 생각보다 기지규모가 작다고 했더니 나가이는 “교가미사키 미군 통신소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교가미사키 항공 자위대 기지(고마쓰 항공자위대 교가미사키 파견 기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일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자위대 기지도 미군 기지나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레이더 전자파 피해로 인한 통제구역을 해상에 설정했기 때문에 (육상)부지가 상대적으로 작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나가이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현직 교사로 주민모임인 「미군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 유지 모임」(이하 우카와 유지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교가미사키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해안가 절벽에 설치되어 있고, 동해 바다 쪽으로 반경 5.5Km, 고도 5.5Km의 원추형 모양으로 비행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레이더는 북쪽을 향할 것이므로 일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반경 5.5Km



왼쪽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
오른쪽 검은 부분은 교가미사키 미군통신소 기지



교가미사키 미군통신소 기지 모습

이내에 민간인 거주지가 있을 경우, 주민을 모두 이주시켜야 하므로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전자파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한민구 국방장관, 2016. 2. 16)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은 미 육군 교범(2012년)이 출입을 통제하는 위험 반경의 기준으로 5.5Km를 제시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레이더 기지 주변에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전자파와 소음 피해는 어떤지 궁금했다.



나가이 사무국장

“그래도 이곳의 레이더 방향은 주민 거주지가 아닌 바다를 향하고 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레이더 방향은 민간인 거주 지역 아닌가? 무서운 일이다. 주민 중에는 전자파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사람들도 있다. 주민 2명은 소음 때문에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한다. 발전기 소음은

미군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레이더를 가동하려면 발전기 6대, 발전기 1대에 엔진 2개씩, 총 12의 엔진이 돌아가야 한다. 방음벽과 방음 덮개(머플러, 발전기 소음 저감시설)를 설치했지만 열 때문에 다 덮을 수가 없다. 미군과 방위청은 간사이 전력에서 전기를 대주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압선 공사에만 2년이 걸린다. 설령 전기를 대준다고 해도 레이더가 이동식이어서 발전기가 또 필요할 것이므로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전자파, 소음 피해 말고도 주민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레이더 기지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2014년 12월~2016년 5월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주거 침입·주민 폭행·교통사고 등 미군 관련 사건이 26건이나 발행했다. “교탄고시와 교토 부에서 주민 안전과 안심에 관해 각각 10개항, 5개항을 작성하고 중앙정부의 방위대신이 이를 보증한다고 문서로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기지의 경비는 블랙워터에서 맡고 있다. 이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나머지 미군속들은 민



미군기지 경비병력(블랙워터) 숙소



미군숙소 옆에 세워진 미군 관련 사고 시 연락하라는 입간판

간인들과 섞여 살고 있고 교탄고시에서는 이들의 정확한 거주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여성 살인사건도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으로 근무하다 제대한 군속이 저지른 일이다. 그 사람도 민간인과 섞여 살았다. 우카와 지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나가이의 설명이다.

주민들 거주지와 떨어진 외딴 지역에 세워진 미 군속 아파트 바로 옆에는 “미군 때문에 사고 나면 연락하라”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땅 주인이 미군의 부지 매입 요구를 거부하고 입간판을 세우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일본 방위청은 지역 교부금을 1년간 6억 엔 씩, 5년간 30억 엔을 투자해서 학교, 도로 시설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자위대 출신 주민들이 많은 우카와 아웃 마을인 소테시, 오와 지역이 집중적인 회유 대상 지역이다.



오완 대표(좌)와 이케다 사무차장(우)

오완과 이케다로 부터 교가미사키 레이더기지 위상과 성격에 대해 들어보았다. 오완은 이번 집회를 주최한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긴키 연락회」 대표를 맡고 있고 이케다는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긴키 연락회」 사무차장이다.


“교가미사키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는 미국 MD의 중요한 일부다. 아베 정권의 전쟁법 통과와 함께 이곳 미군기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최전선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 때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는 풀가동되었다. 만약 나카타니 겐 방위상 말대로 일본이 사드 요격 미사일을 도입한다면, 아모오리 쓰가루 항공자위대 기지, 고마쓰 항공 자위대 기지, 이와쿠니 항공 자위대 기지 3군데 중 한 곳에 배치될 것 같다. SM-3 요격미사일은 마이주루 해상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교가미사키-마이주루-고마쓰로 이어지는 한국의 동해와 접한 일본 중서부 해안은 미일 MD의 중심 기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가미사키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는 괌, 하와이, 미국 서해안으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 “교가미사키 통신소의 AN/TPY-2 레이더는 미 서해안, 괌, 하와이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미 본토 방위에 대한 추가적 센서를 제공한다” 2016년 2월, 교가미사키 엑스밴드 레이더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미 육군 제14 미사일 방위중대가 일본 참의원 외무방위 위원회에 제출한 브리핑 자료에 명시된 사드 레이더의 용도에 관한 설명이다. ‘우카와 유지모임’의 나가이 사무국장도 “미국이 진정으로 적으로 보는 것은 중국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교가미사키 미군 통신소에 배치된 엑스밴드 (AN/TPY-2) 레이더의 용도

“이 레이더는 용도는 미 서해안, 하와이, 괌을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미 본토 방위를 위한 추가적 센서로 공급된다. 이 레이더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포착,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 정보는 하와이 Hickam 공군기지의 C2BMC로 보내는 태평양군담당구역의 다른 센서로 보내진다. 그 데이터는 한편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 총대의 Operation Center에 조기경계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으로 데이터를 배송하는 요코다 공군기지 항공연락부대에 승계된다.”(미 육군 제14미사일 방위중대 브리핑 자료, 2016. 2)

미국의 동북아 엠디 구축에서 한국 배치 사드, 특히 사드 레이더가 갖는 위상과 성격은 무엇일까?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을 위한 동북아 MD 센서 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사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5,000Km에 달하며,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식별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미 제14미사일방위중대 브리핑 자료도 “이 레이더는 다른 레이더와 달리 고도의 식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식별 능력은 실탄두(진짜 탄두)를 간파하고 교전에 중요목표로 보고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미일은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부스트 단계부터 탐지·추적함으로써 교가미사키와 샤리키에 배치된 레이더를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조기경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를 통해 획득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는 교가미사키와 샤리키의 엑스밴드 레이더로 연결되어 계속 갱신되면서 미일의 대북, 대중 엠디 요격작전을 위해 하와이의 Hickam공군기지의 C2BMC(지휘통제체계)와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의 항공자위대로 제공된다.

사드 한국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한 지금, 사드 한국 배치 저지와 일본 교가미사키 엑스밴드 레이더 철거 투쟁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한층 중요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한일 평화운동 및 진보정당 사이의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본군이 미국 함정 보호와 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주는 소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를 통해 획득한 대중 탄도미사일 정보와 한국군의 대북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의 대일 정보 제공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드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이 가져올 아시아의 평화위협

— ‘전쟁법 폐지! 아베 타도! 반전 실행위원회’ 초청 도쿄 방문 —

황윤미 서울평통사

6월 11일(토), 일본 도쿄에서는 ‘전쟁법 폐지! 아베 타도! 6.11집회’가 신주쿠 근처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서는 아베 정권의 군사 정책 비판, 오키나와에 자위대 배치 규탄과 함께 한국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라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주최 측의 초청으로 평통사 고영대 대표가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 고 대표는 미국이 한국 사드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통해 미·중 사이의 전략 균형을 무너뜨리고, 미일 우위의 전략지형을 만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작전까지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일본의 평화와 아베의 전쟁법 폐지를 위해서도 한미일 삼각 MD 구축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런 사실을 보다 많은 일본 대중들에게 알려나감으로써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 준비해 간 내용의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참가자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유심히 쳐다보며 발표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AWC)의 사코다 선생이 도쿄 방문 전날 메일로 보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 출력하여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것도 이해를 도왔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신주쿠 역까지 행진을 하였다. 행진 대열 선두에는 오바마와 아베 가면을 쓰고 경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여 오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행진 대오는 한미일 삼각 MD 구축 중단, 아베의 군사 정책 규탄, 미일 군사협력 중단, 미군 철수, 오키나와 지역에 자위대 배치 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런 구호는 일본의 집회나 행진 때 쉽게 듣기 어려운 구호들이라고 한다.

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미일 MD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집회를 일본 방위성 앞에서 23일 진행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한미일 MD 연합훈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8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인데,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될 한미일 MD 연합훈련 반대 실천 때 서로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또 이 날 행사를 모두 마치고, 신주쿠의 한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몇몇 참가자는 평통사와의 연대, 교류를 강화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패권적인 동아시아 군사 전략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평화 세력들이 연대와 교류를 함으로써 동맹 구축을 막아내는데 상

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 시간이었다.

이 집회 전날,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AWC) 수도권 모임에서 주최한 교류 토론회에서도 고영대 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북의 핵보유 원인과 상황, 한국 사드 배치가 어떻게 미·중 사이의 전략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는지, 사드 레이더의 효능과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였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현 상황과 주한미군 전력과 공세적 공격 연습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2006년의 만리포 상륙훈련과 2016년의 포항 상륙훈련을 담은 영상도 함께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의 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과정과 현재 상황, 북의 핵보유 문제, 일본군의 문민화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AWC 내에서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었으나 평통사 회지에 실렸던 「2016년 정세전망」 글을 읽고 토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향후 AWC와 평통사가 평화운동에 대한 내용적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와 교류를 통해 동북아에서 비핵, 군축, 군사동맹이 아닌 공동안보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더 많이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박 3일간의 동경 방문 동안 통역과 안내를 맡아 수고를 해주신 사코다 선생께 감사드린다. 



전쟁법 폐지! 아베 타도! 6.11 도쿄 집회



통역을 맡아주신 사코다 선생(좌) 과 고영대 대표(우)



신주쿠역 행진-오바마와 아베 풍자 퍼포먼스



실내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 주변에 사복경찰들이 노골적으로 사찰을 하는 모습. 2015년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이후 이런 사찰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